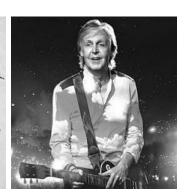
폴 매카트니의 '헤이 주드' 자필 가사지 91만 달러에 팔려

비틀스 멤버 폴 매카트니(77·오른쪽)가 52년 전 손으로 쓴 명곡 '헤이 주드' (Hey Jude)의 가사지가 지난 10일 비틀스 해체 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온라인 경매에서 91만 달러에 팔렸다. 이는 감정가의 5배를 넘는 액수이다. 이 가사지는 비틀스가 1968년 런던 소호에 위치한 녹음실 트리던트 스튜디오에서 '헤이 주드'를 녹음할 당시 사용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경매에는 기타와 LP판등 비틀스의 기념품 250여점이 출품됐다.

정확히 50년 전인 1970년 4월 10일 매카트니는 인 터뷰를 통해 세계를 강타한 비틀스의 해체를 선언했 다. 당시 그는 훗날 비틀스의 명콤비 존 레넌과 다시 작업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노" (NO)라고 단호히 답했다.

'헤이 주드' 는 레넌이 이혼하자 매카트니가 레넌의 아들 줄리언(Julian)을 위로하기 위해 쓴 곡으로 애초 제목은 '헤이 줄스(Jules)' 였다. 레넌은 1966년 일본



인 전위 예술가 오노 요코를 만나면서 줄리언의 친모 이자 자신의 첫째 부인인 신시아와 이혼했다.

한편,이날 경매에서 비틀스가 1964년 첫 미국 투어 당시 사용했던, '비틀스' 로고가 새겨진 드럼 북가죽은 20만 달러에 판매됐다. 이외에도 1967년 '헬로 굿바이'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사용한 수기 스크립트는 8만3천200달러, 링고 스타가 1960년대 애비 로드스 튜디오에서 녹음할 때 애용했던 놋쇠 재떨이는 3만2 천500달러에 각각 팔렸다.

블랙핑크, 코첼라 풀버전 공개

그룹 '블랙핑크' 의 '2019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 츠페스티벌' 무대 풀버전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1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날 블랙핑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들이 작년 코첼라에서 선보였던 '붐바야' 와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무대영상이 게재됐다.

블랙핑크는 '붐바아' 무대에서 라이브 밴드와 함께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사했다. '킬 디스 러브' 무대는 귀를 강타하는 강렬한 음악, 에너지 넘치는 폭발적인 안무로 관객들의 함성을 이끌어냈다. 후반부에는 댄 서들과 함께 무대를 꽉 채우며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 길을 사로잡았다.

블랙핑크는 최근 코첼라 20주년 다큐멘터리(Coac -hella: 20 Years in the Desert)에도 출연하기도 했다.

앞서 블랙핑크는 약 1년 전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에 서 열린 코첼라 사하라 무대에 K팝 걸그룹 최초이자



서브 헤드라이너로 초대돼 차일디시 감비노, 아리아 나 그란데 등 쟁쟁한 뮤지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코첼라는 1999년부터 시작돼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뮤직 페스티벌이다. 대중적인 인기는 물론 음악성을 갖춘 아티스트를 초청해 수많은 뮤지션의 '꿈의무대'로 통한다. 음악 외에도 패션·라이프 스타일 등문화 전반의 트렌드를 교류하는 축제이다.

올해 축제는 애초 이달 4월 10~12일, 17~1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10월로 연기됐다.

'딕훼밀리' 서성원, 코로나19로 사망



1970년대 인기를 누린 그룹사운드 '딕훼밀리' 원년 멤 버인 드러머 서성 원(사진 왼쪽)이 지난 13일 사망했 다. 서성원은 코로 나19 확산세를 보 이고 있는 이달 초 LA에서 코로나19

에 감염, 치료를 받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성원의 부인은 '날개' 로 기억되는 가수 허영란 이다. 그녀는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딕훼밀리는 1970년대 초 결성됐다. 서성원은 팀의 리더이자 드럼을 맡았다. 1974년 내놓은 1집에서 '나는 못난이' '흰 구름 먹구름' '작별' 등이 크게 히트하면서 인기를 누렸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 요' 라는 노랫말의 '또 만나요' 로 특히 잘 알려졌다. 당시 한국 대다수의 다방, 분식집, 술집 등이 하루의 영업을 끝낼 때 이 곡을 방송했다.

덕훼밀리는 파고든다는 의미의 영단어 '디그(dig)'를 붙여 '음악을 파고든다'는 뜻으로 지은 것이었다. 당시 정부의 언어순화 정책 탓에 활동 후기에는 '서생원 가족'으로 개명하기도 했다

숫자퍼즐 정답								
5	3	9	7	4	6	2	8	1
6	1	7	5	8	2	9	4	3
8	4	2	3	9	1	6	5	7
7	8	4	1	5	9	3	6	2
9	5	3	2	6	7	4	1	8
1	2	6	8	3	4	7	9	5
2	6	5	9	1	3	8	7	4
3	9	1	4	7	8	5	2	6
4	7	8	6	2	5	1	3	9

